

[프로야구]문성현, 2군 첫 실전 등판서 호투

등록 2012.07.08 16:45:31 | 수정 2016.12.28 00:55:57



【서울=뉴스시스】조용석 기자 = 지난 5월 연습 중 부상을 입고 2군으로 내려간 문성현(21·넥센 히어로즈)이 첫 실전피칭을 실시했다.

넥센은 문성현이 8일 전남 강진 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 등판해 1⅓이닝 2탈삼진 무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성현의 실전피칭은 지난 5월4일 광주 KIA전 선발 등판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날 8회2사후에 마운드에 올라 4타자를 상대한 문성현은 직구(10개)와 슬라이더(1개)를 섞어 모두 11개의 공을 던졌으며, 최고구속은 143km까지 나왔다.

넥센 김시진(54) 감독은 "문성현이 1군으로 올라와도 선발진으로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며 "복귀하면 구원투수인 손승락 앞에 등판하는 계투진으로 활용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현은 지난 5월8일 목동 LG전에 앞서 불펜 피칭을 하다가 왼쪽 갈비뼈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2군으로 내려갔다.

문성현은 올시즌 5경기에 등판해 1승1패 평균자책점 5.40의 성적을 냈다.

chojuri@newsis.com